

2026.08.06.

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결정

- 존속회사, 외형 및 사업포트폴리오 축소에도 신용도 영향 제한적

이주원 기업2실 선임연구원
02.368.5518
leejw@korearatings.com

김미희 기업2실 수석연구원
02.368.5418
mhkim@korearatings.com

최한승 기업2실 실장
02.368.5324
hschoi@korearatings.com

2026년 8월 5일 (주)현대홈쇼핑(A1, 이하 '동사')은 이사회에서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와 (주)한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분할신설회사 '(주)현대홈쇼핑지주(가칭)'로 인적분할하는 안을 결의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2026년 11월 12일,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모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현대홈쇼핑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지배구조 개편 이전 동사는 별도기준 자체 사업인 홈쇼핑 외에도 자회사를 통해 패션, 전기통신·바이오, 전자재·가구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었으나, 분할 이후에는 주력 사업이 홈쇼핑으로 한정됨에 따라 외형 및 사업포트폴리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과점적 시장구조가 유지되는 홈쇼핑 산업 내에서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기획 및 채널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견조한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분할 이후에도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분할 전 부채(2026년 3월 말 기준 2,354억원)는 전액 존속법인에 귀속됨에 따라, 동사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분할 전 14.0%에서 51.0%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부채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재무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분할 이후에도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1. 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결정

2026년 2월 11일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 동사는 동사를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하였으며,¹ 2026년 6월 30일 주식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동사는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이어 동사는 2026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와 (주)한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분할신설회사인 (주)현대홈쇼핑지주(가칭)로 인적분할하는 안을 결의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2026년 11월 12일 예정되어 있고,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15일, 분할등기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다만 본건 인적분할은 방송법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승인 대상으로, 승인 일정에 따라 분할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분할신설회사는 이후 모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주)현대바이오랜드 지분과 관련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고, 해

¹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홈쇼핑 완전자회사 편입 및 지배구조 변경 계획에 대한 KR의 견해(26.02.12)

KR SPECIAL COMMENT- 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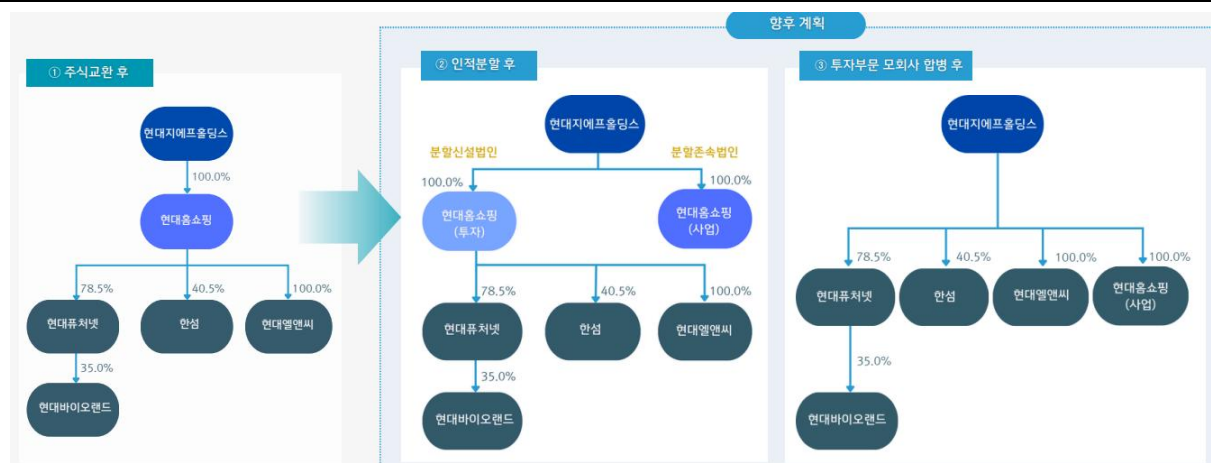
당 요건의 법정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7년 3월 1일 이전에 지배구조 개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1] 인적분할 내용

구분	내용
분할대상	(주)한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현대홈쇼핑: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분할신설회사	(주)현대홈쇼핑지주(가칭): 자회사, 피투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
분할비율	분할존속회사 0.2736149 : 분할신설회사 0.7263851
분할 후 자본금	분할존속회사 192억 9,409만원 / 분할신설회사 407억 518만원
분할일정	2026.08.05 이사회결의일 2026.11.12 주주총회 예정일 2026.12.15 분할기일 2026.12.17 분할등기 예정일

자료) 공시자료

[그림] 지배구조 변화



자료) 현대홈쇼핑 IR자료

2. 분할로 인한 신용도 영향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금번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현대홈쇼핑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지배구조 개편 이전 동사는 별도기준 자체 사업인 홈쇼핑 외에도 자회사를 통해 패션, 전기통신·바이오, 전자재·가구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었으나, 분할 이후에는 주력 사업이 홈쇼핑으로 한정됨에 따라 외형 및 사업포트폴리오가 축소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과점적 시장구조가 유지되는 홈쇼핑 산업 내에서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기획 및 채널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견조한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분할 이후에도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TV 시청인구 감소와 모바일·온라인 채널로의 소비 이전, 송출수수료 부담 등으로 홈쇼핑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분할 이후 외형 및 수익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분할 전 부채(2026년 3월 말 기준 2,354억원)는 전액 존속법인에 귀속됨에 따라, 동사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분할 전 14.0%에서 51.0%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부채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재무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분할 이후에도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분할 전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표 2] 분할 전후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분할전	분할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유동자산	7,227	4,597	2,630
비유동자산	11,994	2,372	9,621
자산총계	19,220	6,969	12,251
유동부채	2,206	2,206	0
비유동부채	149	149	0
부채총계	2,354	2,354	0
자본금	600	193	407
자본잉여금	2,535	2,535	11,844
기타자본항목	-0	-11,844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9	109	0
이익잉여금	13,623	13,623	0
자본총계	16,866	4,615	12,251
부채비율	14.0%	51.0%	0.0%

주) 상기 분할 재무상태표는 2026년 3월 말 기준에서 2026년 6월 포괄적 주식교환시 현대홈쇼핑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임의소각분, 기보유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분할기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분할계획서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채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